

능무꽃

2025 겨울 62

유족 인터뷰

한날 꺾인 두 생, 끝내 지켜낸 한 집안의 의지
이양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이어춘의 고손자

전시

대둔산-동학농민혁명 최후항전지
2025년 하반기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특별전

특집 인터뷰1

동학농민혁명 연구자와의 대화
동학농민혁명 연구자 이병규 박사가 말하는
대둔산 항쟁과 역사, 그리고 삶

특집 인터뷰2

반란의 시대에서 혁명을 노래하다
한국 헤비메탈 밴드 '블랙홀' 주상균



unesco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

2025년 하반기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특별전
'대둔산-동학농민혁명 최후항전지' 연계

『의산유고(義山遺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동학농민군 진압 선봉에 섰다가 의병을 창의한 문석봉(文錫鳳, 1851~1896)이 남긴 문집.

문집 권1에 실린 「토비략기(討匪略記)」에는 동학농민군 최후 항전지로 알려진 대둔산 정상 남서쪽 미륵바위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 상황이 비교적 상세하게 실려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채널



홈페이지



웹진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녹두꽃

02 기념공원의 겨울

04 유족 인터뷰

한날 꺾인 두 생, 끝내 지켜낸 한 집안의 의지
이양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이여춘의 고손자

12 전시

대둔산-동학농민혁명 최후항전지
2025년 하반기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특별전

18 특집 인터뷰1

동학농민혁명 연구자와의 대화
동학농민혁명 연구자 이병규 박사가 말하는
대둔산 항쟁과 역사, 그리고 삶

22 재단 소식

28 특집 인터뷰2

반란의 시대에서 혁명을 노래하다
한국 헤비메탈 밴드 '블랙홀' 주상균

32 전국 소식

43 녹두꽃 다시 피다

46 독자참여 이벤트

표지 설명

62호(2025년 겨울호) 표지는 임채욱 작가가 촬영한 대둔산 미륵바위를 담았다. 동학농민군 최후 항전지였던 대둔산의 거친 능선은 겨울빛 속에서도 굳센 의지를 나타내듯 서 있어 그날의 비장한 숨결을 전한다.



통 권 62호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 화 063 530 9413

발행일 2025. 12. 31. 팩 스 063 538 2893

발행인 신순철 기획·편집 임현진

이메일 1894@1894.or.kr 제 작 (주) 고려디자인

편집자문위원 최명주, 최기우, 김희경, 최두현, 신병구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소식지 '녹두꽃' 구독 신청





눈 위에 피어난 황금빛 새벽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평등한 세상과
사람다운 삶을 꿈꾸며 싸웠던
동학농민군의 정신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자주의 뜻을 오래도록 전하기 위해,
역사와 자연이 함께 머무는
배움터로 조성되었습니다.

한날 꺾인 두 생, 끝내 지켜낸 한 집안의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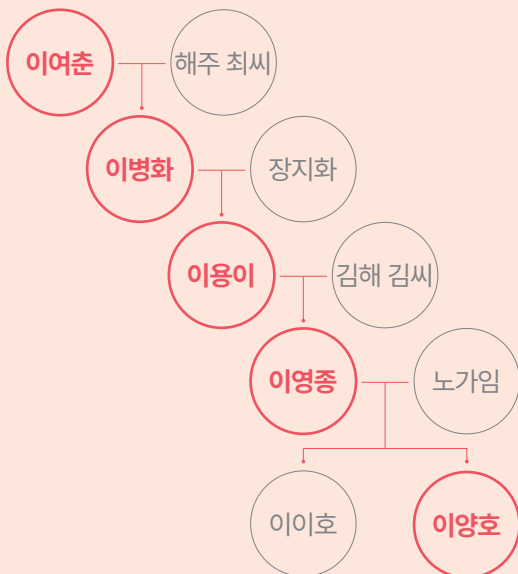
이양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이여춘의 고손자

날짜 2025. 11. 4.(화)

장소 경기도 고양시

참여자 이여춘(1845. 6. 6. ~ 1894. 4.)

유족 이양호(이여춘의 고손자)



<이여춘 참여자 가계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인 이여춘 선생과 이병화 선생은 1894년 나주 전투에서 큰 활약을 보였으나, 전투 패배 후 같은 날 순국하여 집안에 큰 슬픔을 남겼다. 특히, 이여춘 선생은 '무안 거괴(巨魁) 이여춘'으로 기록될 만큼 지역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했던 인물로 보인다.

이여춘 선생은 '이여춘', '이동근', '이상술' 등 여러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시대적 상황과 신변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후손들은 선조의 이름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두 차례에 걸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록을 신청하며 조상의 흔적을 끝까지 추적해 왔다.

Q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 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먼 길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고조부 이여춘 할아버님과 증조부 이병화 할아버님의 후손인 이양호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며, 고향인 함평 진례(옛 무안현)에서는 「진례설화」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기 전에는 서울 혜화동에서 『문학신문』(1990)을 발행하기도 했었습니다.

Q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이여춘 선생님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경기도 광주 이문 석탄공파 24대손으로, 이여춘 할아버님은 저의 고조부입니다. 고조부님께서는 아드님이신 증조부 이병화 할아버님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습니다.

집안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고조부님께서 무안현 진례 지역에서 약 1,000여 명을 이끄신 동학농민군 대장(거괴)이셨다고 합니다. 두 분께서는 같은 날 순국하셨으며, 장례식 날에는 만사(輓詞)가 10리에 걸쳐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와 집안 어르신들께 자주 들었습니다. 집안에서는 고조부님을 ‘동학 대장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리고 있습니다.



2025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통지서 전달식
(왼쪽부터 신순철 기념재단 이사장, 이이호 유족, 오른쪽 정탄진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Q 집안 어른들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어릴 적부터 고조부님을 ‘동학농민군 1,000명 대장’으로 기억해 왔습니다. 또 어머니께서 호롱불 아래에서 노랫말처럼 들려주곤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부인동장씨비(烈婦仁同張氏碑)」의 주인공이신 우리 증조모 장지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지화 할머니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남편과 시아버지가 같은 날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본인은 보쌈까지 당하는 등 극심한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당시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두 아들을 지키려는 근성으로 고초를 이겨내고 있었는데, 꿈에 남편이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여보, 나는 목이 잘린 아버지를 모시고 나주와 장성을 지나 북쪽으로 건너갈 것이니, 당신은 시방 어서 빨리 일어나서 동북 방향으로 가서 두 아들 잘 키우고 살면, 살구나무에 순이 나고 잎이 돌아나며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날 반드시 있을 것이요. 어서어서 서두르시오.”

이 이야기는 「열부인동장씨비」에 기록되어 있고, 『호남누정총람(湖南樓旌總覽)』(1955)에도 남아 있습니다. 구전과 기록이 함께 가족의 기억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Q 2008년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 등록을 신청했다가 불인정되었고, 2024년 다시 신청하여 2025년에 인정받으셨습니다. 불인정 당시 심정과 재신청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등록을 신청할 때, 「열부인동장씨비」 사진과 전심 전력으로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지만, 역사적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인정되었습니다. 당시 집안에서는 고조부님의 이름을 ‘이상술’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여러 이름을 사용하셨고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에 ‘이동근’, ‘이여춘’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는 일찍이 우리 고조부님을 ‘이동근’이라는 이름으로 참여자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료에서 ‘이여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고조부님의 활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부인동장씨비」

다만, 집안에서는 족보의 ‘이상술’이라는 이름만 알고 있어 ‘이동근’, ‘여춘’이라는 이름이 동일인이라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2024년 집안 제적부에서 찾은 ‘이동근’이라는 함자는 더욱 생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가문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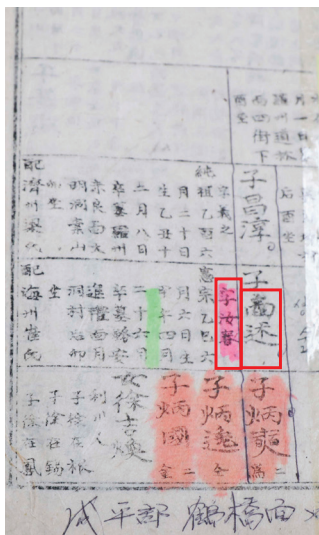
그때 심정은 집안 어른신들의 신원을 회복시켜드리지 못한 점이 죄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집에서는 ‘동학 대장 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라에서 인정 받지 못한 격이라 밖에서 언급하기 꺼려졌습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들의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전에 반드시 선대의 명예를 찾아드리자.” 이 일념 하나로 2번째 신청을 하였고, 마침내 2025년 고조부님과 증조부님께서 공식적으로 참여자로 인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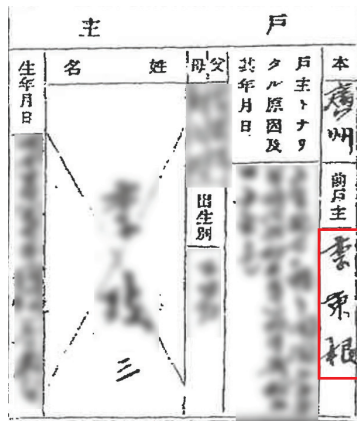
Q 고조부님께서 여러 이름을 쓰신 이유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을까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입증을 위해 고조부님 이름을 제출할 때, 족보에 기록된 ‘이상술’만을 생각했던 것은 후손으로서 부족했던 점이라 생각합니다. 고조부님의 다양한 존함을 찾는 데 도움을 주신 무안문화원 정경탁 팀장님과 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조사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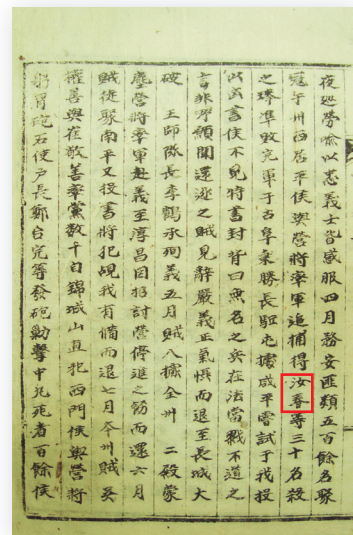
여러 이름을 사용하신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름에 담긴 뜻을 중요히 여기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춘(汝春)’은 ‘겨울을 보내고 봄을 준다’는 뜻이 아닐까 추측하고, ‘동근(東根)’은 동학의 근본을 살리려는 의지가 담긴 존함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합니다.



『광주이씨파보(廣州李氏派譜)』
(1984)의 ‘상술(商述)’, 자(字)
‘여춘(汝春)’



제적등본의 ‘이동근(李東根)’



양상형, 『백하유고(柏下遺稿)』 4,
『금성평적비문』의 ‘여춘(汝春)’

Q 이여춘 선생님과 아드님이신 이병화 선생님의 활약상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894년 음력 4월 6일, 무안에서 나주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 사료에서 이 전투를 이끈 인물이 ‘무안 거괴 이여춘’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고조부님이십니다. 고조부님과 증조부님은 함께 이 전투에 참여하셨고 패배하여 음력 4월 26일 같은 날 순국하셨습니다. 고조부님은 나주 초토영(현 나주초등학교)에서 효수되었고, 증조부님은 무안읍에서 처형되었습니다. 두 분이 같은 날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족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조부 이병화 할아버님께서 동학농민군에 참여하신 이유는 세 형제 중 체구가 가장 크고 기골이 장대하셨으며 시대의 흐름을 읽는 지혜가 남달랐기 때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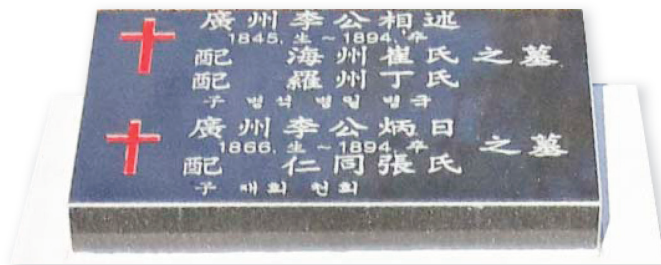
而懸首於旗綸使之奉 命而燒殺於路且夫豐沛全城
無難陷據以致西 殷之蒙塵痛憤之極覆載難容而其
時道帥臣及招討使仰體 朝家好生之德意俾聞自新
之路則雖彼頑蠢宜其悔改而猶復侵擾倍前蹂躪恣行
充慙擅擄正供辱殺 命吏罪惡貫盈是如乎猥以不才
奉 命此際列邑匪援行將招討是幸在果惟此錦城地
居要衝職任保障是予所往在四月務安匪類五百名犯
于州西民皆驚散憤激所發即率吏校協同營將倍道急
擊捕得匪類三十餘名而其中巨魁李汝春蔡仲斌羅順
厚押送鎮營梟首警衆其餘安啓玄等二十七漢自邑結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



Q 두 분의 장례는 어떻게 치러졌는지, 묘소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조부님의 시신에 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효수된 목(머리)만 돌아왔다는 설, 다른 하나는 몸만 돌아왔다는 설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는 집안 어른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군의 눈을 피해 밤중에 장례를 치렀다는 말씀도 당숙부님께 들은 바 있습니다. 고조부님의 만사가 10리에 달했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면, 고조부님께서 지역 사회에서 큰 신망을 쌓아오신 분이였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이여춘 묘비

Q 동학농민혁명 참여로 인해 집안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나요?

어머니께 호롱불 밑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관군이 집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후 증조모님께서 친정인 홍릉동으로 가셨지만, 거기서도 보쌈을 당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어찌 지난 시대의 어려움을 후손이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Q 아직까지도 집안의 동학농민혁명 참여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차례 등록을 신청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후손의 본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고조부님을 찾기 위해 2번에 걸쳐 기념재단에 참여자 및 유족 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열부인동장씨비」 비석만으로는 동학농민군으로 순국한 것인지, 동학농민군에게 희생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며 불인정을 받았습니다. 집안에서는 ‘동학군 대장 할아버지’로 기억해 왔기에 그 사실을 쉬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선대가 목을, 그것도 두 분 모두 목이 꺾여 돌아가셨는데, 가만 두고 볼 후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우연히 무안문화원 정경탁 팀장님과 연이 닿아 긴 세월의 고생 끝에 우리 고조부님과 증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처럼 족보의 이름만 보지 마시고, 자(字), 호(號), 제적부의 이름까지 모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여러 이름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는 기념재단에도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양호, 이이호(이여춘 참여자의 후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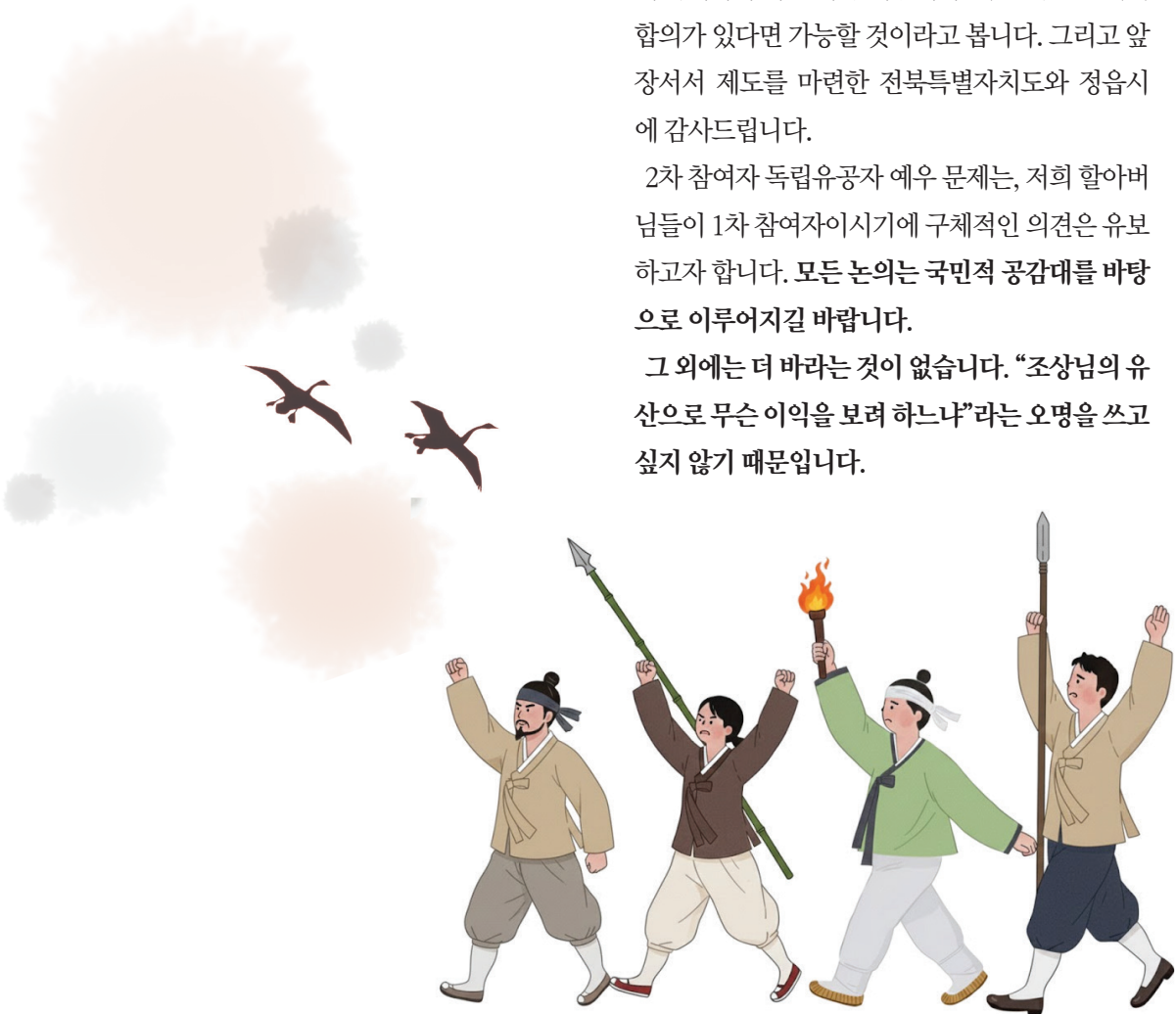
Q 동학농민혁명 명예 회복 관련 논의에 대한 견해를 들려주십시오. 최근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에 명기하자는 의견부터, 2차 봉기를 항일 저항의 출발점으로 보아 2차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정읍시처럼 유족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방안까지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동학농민혁명이 3·1운동의 기폭제요, 4·19혁명의 뿌리요, 5·18광주민주화운동의 근간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니, 그 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유족 수당 관련 문제는 후손으로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조상님께서 이루신 정의로운 역사에 혹여나 누가 될까 염려됩니다. 다만 국민 전체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제도를 마련한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읍시에 감사드립니다.

2차 참여자 독립유공자 예우 문제는, 저희 할아버님들이 1차 참여자이시기에 구체적인 의견은 유보하고자 합니다. 모든 논의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외에는 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조상님의 유산으로 무슨 이익을 보려 하느냐”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Q 끝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으로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혹은 정부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기념재단에서 지금까지 고군분투하며 참여자를 발굴해오셨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조부님과 증조부님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주신 무안문화원 정경탁 팀장님처럼 개인적으로 자비를 들여 조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념재단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지원할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양한 접근을 통해 더 많은 참여자를 발굴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저희 집안처럼 자료가 부족해 인정받지 못했던 사례를 기념재단에서 다시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기억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억울함과 참담함을 유족들이 겪지 않도록 더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족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대담자: 기념재단 기획운영부장 최두현,
정리: 기획운영부 임현진)



대조산

동학농민혁명 최후항전지

2025년 하반기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특별전

기간

2025.9.23. ~ 2026.2.22.


장소

동학농민혁명기념관 1층 기획전시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시 기획

이은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학예연구사)

주최·주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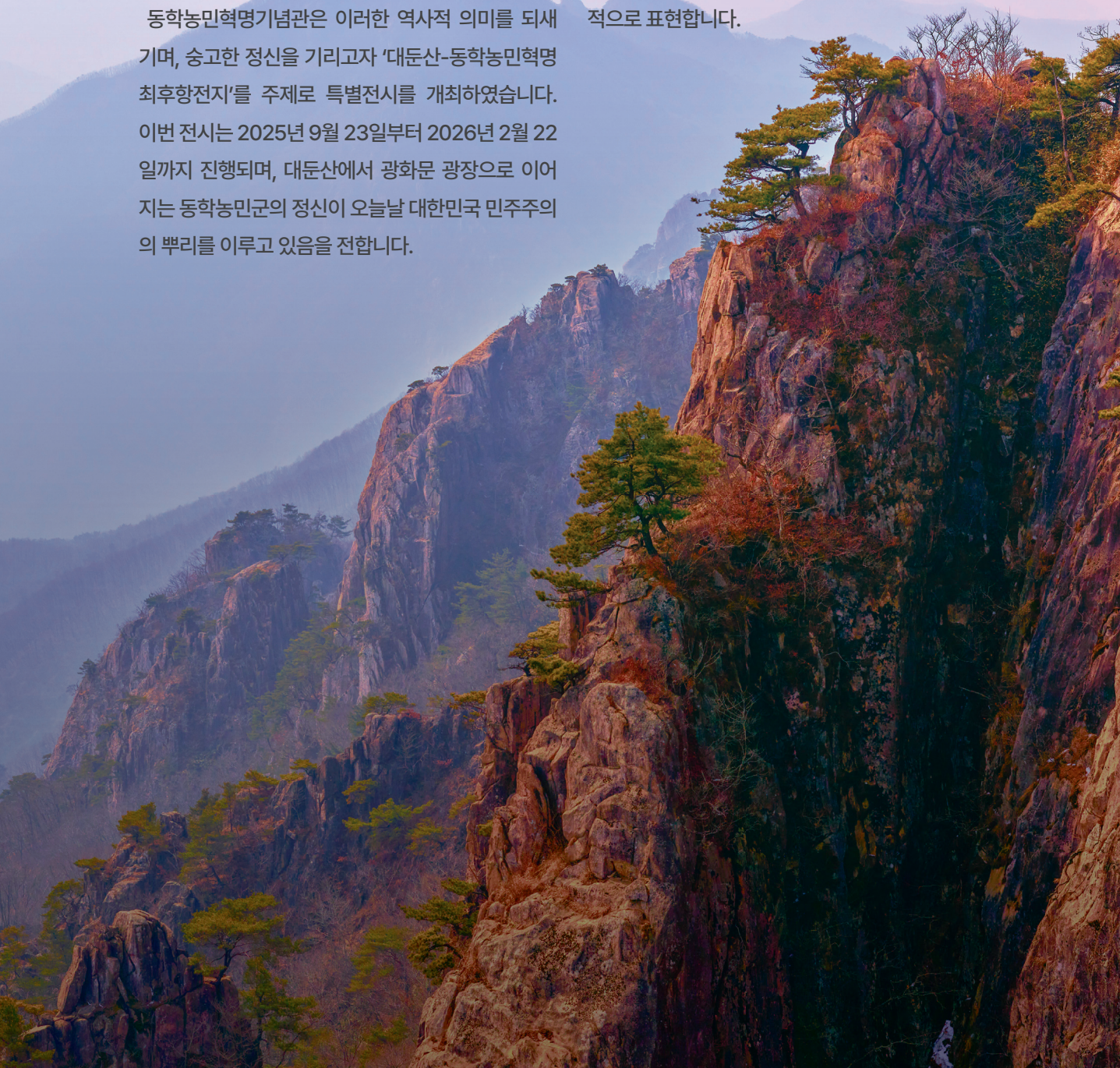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지난겨울, 무장한 군인과 삼엄한 공권력 앞에서도 불빛과 노래로 저항했던 광화문 광장의 시민들은 애국심과 민주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들의 절박함은 130년 전, 끝까지 맞서 싸웠던 대둔산 동학농민군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대둔산-동학농민혁명 최후항전지'를 주제로 특별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2025년 9월 23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진행되며, 대둔산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이어지는 동학농민군의 정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이루고 있음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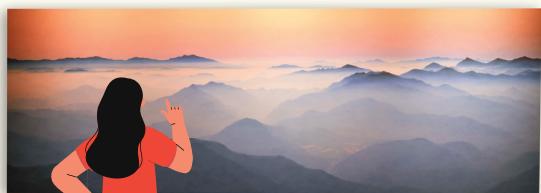
이번 특별전시는 한국의 산을 주제로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 온 임채욱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총 3부로 구성되었습니다. 임채욱 작가는 직접 촬영한 산의 풍경을 한지에 인쇄해 한 폭의 산수화를 구현하고, 한지의 독특한 물성을 활용한 구김 작업으로 산이 지닌 고요함, 웅장함, 청량함 등 다채로운 감각을 입체적으로 표현합니다.





1부 <대둔산: 첩첩산중>

1부 <대둔산: 첩첩산중>에서는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인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펼쳐진 대둔산의 장대한 모습을 소개합니다. 계절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빛의 흐름을 담은 작품을 통해 자연의 장엄함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둔산
Daedunsan 2502



대둔산
Daedunsan 2504



대둔산
Daedunsan 2506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최후항전지

이후 문헌 기록과 이규만 선생의 증언을 바탕으로 원광대학교 사학과 조사단에서 1998년부터 조사를 진행하여 1999년 2월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2부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최후항전지>

2부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최후항전지>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의 풍경과 함께, 동학농민군을 향했던 일본군의 주요 무기인 스나이더 엔필드 소총 등을 전시하여 대둔산 절벽 위에서 벌어진 참혹한 항전의 순간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화승총

스나이더 엔필드

총검과 총검집



화약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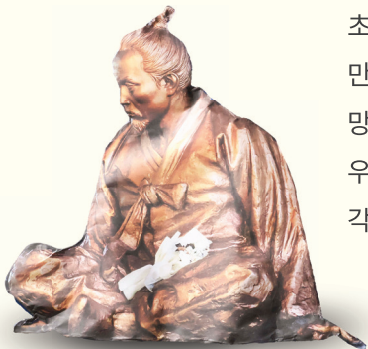
대둔산
Daedunsan 3D2501



3부 <전봉준 부활 2025>

3부 <전봉준 부활 2025>에서는 1894년에 완성된 말러 교향곡 2번 '부활'을 배경음악으로 한 영상작품을 통해, 대둔산 최후항전지의 아픈 역사와 숭고한 정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희망으로 이어지는 메시지로 재조명됩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마다 일어섰던 민초의 용기와 희생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대둔산 절벽 위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동학농민군의 정신과,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갈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은 기억을 품고, 음악은 부활하며,
시민들은 다시 빛이 되고

대둔산, 동학,
말러의 부활 교향곡 그리고
촛불혁명을 이은 빛의 혁명

[서곡]

안남의 어의도를 향한 내달림은, 한 세기 전 대둔산의 함성을 닮아 있었다.

[1악장]

대둔산, 혁명의 산 ; 산의 바위는 오랜 시간 견고했지만, 숨은 기억하고 있었다.

[2악장]

동학 ; 함성의 육신들은 사라졌으나 산은 그 소리를 품은 채 여전히 울리고 있다.

[3악장]

말러 교향곡 2번 부활 ; 비탄과 찬란이 교차하는 시간, 부활 교향곡은 잠시 쉬고 있던 영혼의 눈을 다시 뜨게 한다.

[4악장]

시대의 폭력자 녹두장군 ; 청동으로 굳어진 전봉준의 눈동자에 다시 시민들의 행진이 지나간다

[5악장]

'빛의 혁명'의 태초 ; 혁명은 불씨가 아니었다. 그것은 빛이었다, 꺼지지 않는.

[코다]

그렇지 않은 불연에서, 그러한 기억의 시간으로



2025년 하반기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특별전 개막식

2025년 9월 23일 오후 3시 30분,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1층에서 특별전시 '대둔산-동학농민혁명 최후항전지' 개막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산·임종명 의원 등 주요 인사와 동학농민혁명 전문 해설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개막식에서는 전) 광주시립미술관 김준기 관장이 이끄는 공연팀 '새벽광장'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동학농민군의 숭고한 정신과 그들이 남긴 역사적 발자취를 담은 노래로 참석자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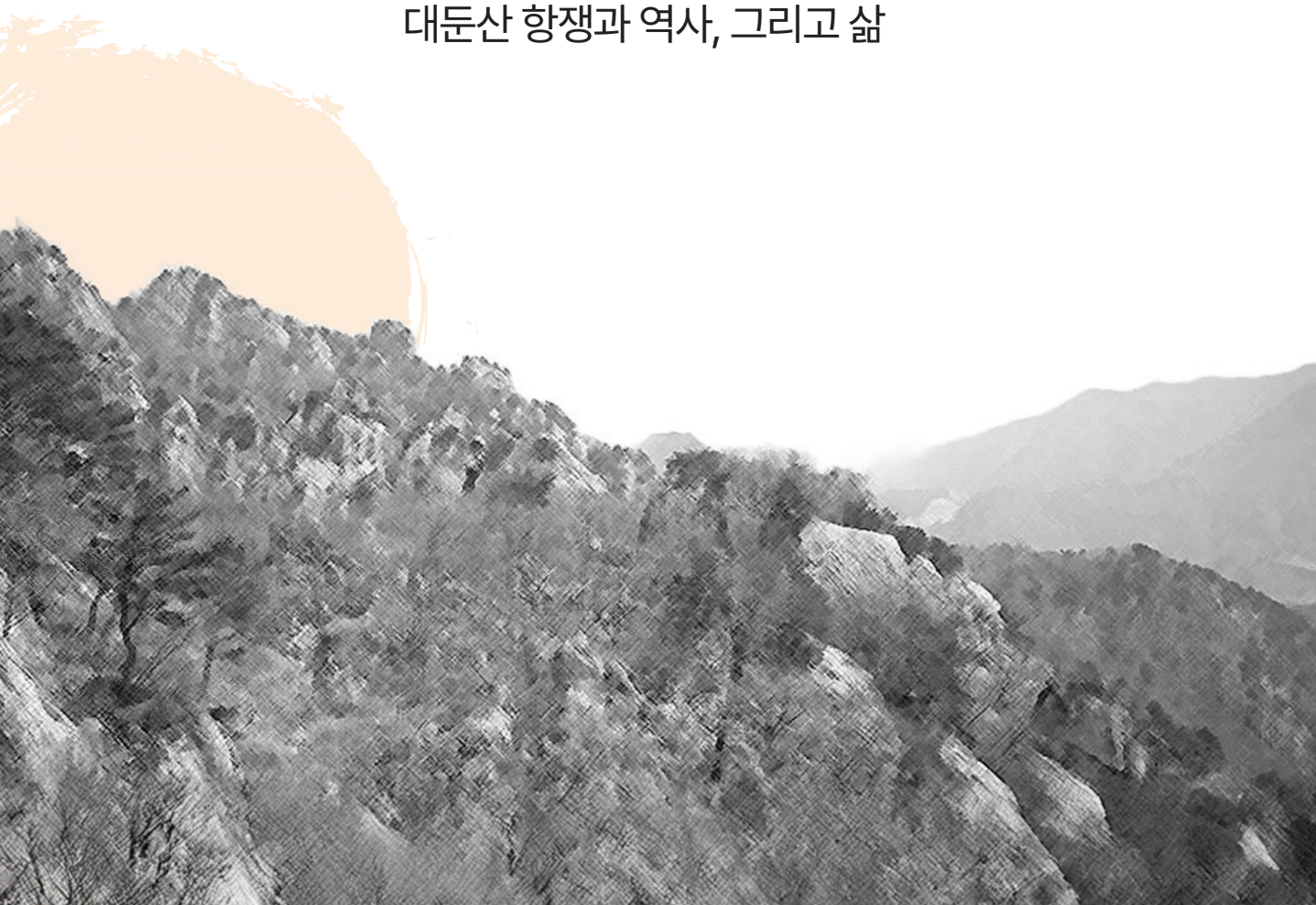


특별전시 해설은 임채욱 작가가 맡아 각 작품에 담긴 메시지를 상세히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대둔산의 장대한 자연과 동학농민혁명 최후항전지의 역사적 의미를 보다 깊이 체감할 수 있었다.

개막식에 참석한 이들은 이번 특별전시로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되새기고, 우리의 용기와 앞으로의 희망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됨을 공감하며, 전시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동학농민혁명 연구자와의 대화

동학농민혁명 연구자 이병규 박사가 말하는
대둔산 항쟁과 역사, 그리고 삶





동학농민혁명 연구자 이병규 박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제1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블로그 기자단 장세희

“대둔산은 저에게 성지입니다.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공간이죠.”

이병규 박사는 원광대학교 사학과 신순철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발을 들였다. 문서로만 전해져 오는 동학농민군의 마지막 항전지를 찾기 위해 대둔산 정상을 신순철 교수와 함께 올랐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죽겠더라고요. 고소 공포증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신순철 교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절벽을 오르셨어요. 결국 저도 따라 갔습니다. 눈으로, 발로, 온몸으로 역사를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이 현장의 체험이 바탕이 되어 박사 논문 「금산·진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연구」(원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년)가 완성되었다.



대둔산, 전북 완주와 충남 금산 사이. 칼처럼 솟은 험준한 절벽 사이로 아득한 시간이 스며 있다. 1894년 겨울, 우금치 전투 패배 후 마지막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았던 동학농민군이 남긴 흔적은 지금도 남아 있다. 그리고 이 현장을 또렷한 역사로 되살리고 싶은 이가 있다. 동학농민혁명 연구자, 이병규 박사다.

그는 잊힌 이 전장을 역사의 현장으로 되살리기 위해 수십 차례 절벽을 기어올랐다. 동시에 일본 외무성 문서, 주한일본공사관의 보고서, 지역 문집과 민간 전승까지 살살이 뒤졌다. 그 과정에서 희생된 동학농민군들의 이름을 발견했다. “그 이름들을 역사로 복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결정, 행동, 죽음이 단지 이름 석 자로만 남는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죠.”

발견되지 않은 현장을 걷다

문헌에는 ‘대둔산 항쟁’이 있었던 것으로 나오지만, 그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마지막 항전이 있었던 날로부터 100여 년이 지나서 그는 신순철 교수와 함께 수차례 산을 오르며 지형을 분석하고, 기왓장, 탄피, 구들 터 등의 유물을 확인했다. 대둔산 미륵바위 정상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암자나 거주지가 있었던 흔적도 발견됐다.

이 박사는 이를 단순한 군사적 거점이 아닌, 삶과 죽음이 교차한 공간으로 본다. “기와와 구들, 초막 3채. 그곳은 ‘잠깐 숨어든 곳’이 아니라 삶의 의지를 담은 자리였어요.”

금산과 진산, 지역의 색깔이 만든 항쟁의 배경

대둔산 항쟁은 단순한 피신이나 전투가 아니었다. 그 배경에는 금산과 진산 지역의 뚜렷한 지역색과 갈등이 있었다. 금산은 인삼 유통과 보부상 조직의 중심지로 보수적이고 기존 질서 유지를 중시했던 반면, 진산은 천주교 전파와 민란이 잦았던 지역으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강한 곳이었다.

“보부상은 유림과 결탁되어 있었고, 민보군으로 활동하며 농민군을 토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과 새로운 질서를 꿈꾼 농민군의 충돌이 대둔산에서 만난 것이죠.”

“절벽 위에서, 저는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대둔산은 동학농민군 무장투쟁의 사실상 마지막 전투 장소이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현장이 남아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1894년 겨울, 우금치 전투에서 패한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고산과 진산(현재 충남) 사이, 수백 미터의 험준한 절벽 위에서 결사 항전을 준비했다. 동학농민군은 이곳 미륵바위 정상에 초막 세 채를 짓고 30~50명이 머물며 장기전에 대비했다.** 약 70일간 이어진 항전은 1895년 2월 18일(음력 1월 24일), 일본군과 조선 관군의 기습공격으로 불과 몇 분 만에 20여 명이 현장에서 살해되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희생자 대부분은 지역 접주급 지도자들이었으며, 20대 임산부도 목숨을 잃었다. 김석순 접주는 한 살배기 딸을 안고 계곡 아래로 뛰어내리다 바위에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생존자는 단 한 명, 어린 소년뿐이었다. 너무나 험해서 오히려 원형이 보존된 이곳을 100년이 지나서 찾아낸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은 특정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동학농민혁명이 특정 지역의 '위인 중심 서사'로만 전해지는 것에 늘 안타까움을 느낀다. 고부과 정읍의 중심 서사는 분명 의미 있지만, 전국적으로 일어난 봉기 각각에는 고유한 지역 배경과 민중의 사연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둔산 항쟁은 금산과 진산 지역의 뚜렷한 색깔이 충돌한 상징적 사건이었다. **보수적인 보수상 중심지였던 금산, 그리고 천주교와 민란이 잦았던 진산.** “이 두 지역이 맞닿은 대둔산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기득권과 새로운 질서가 맞붙은 전장”이었다고 그는 설명한다.

“죽기 위해 싸운 게 아닙니다. 살아가기 위해 싸운 겁니다.”

이병규 박사는 2005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 등록, 문화재 등록, 세계기록유산 등재 실무 등 현장과 정책의 가교역할을 해왔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으로 활동하며 유물 10여건을 문화재로 등록시켰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단순한 실적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역사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한다.

“역사는 기록하는 게 아니라 묻는 일입니다. 그들은 왜 싸웠는가?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

“대둔산은 제게 성지입니다.”

“대둔산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현장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공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됐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이들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가 말하는 역사란, 과거를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그 기록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일이다.

“동학농민군은 단지 죽기 위해 싸운 게 아닙니다. 삶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둔산은,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한 산입니다.”

이병규 박사는 기회만 되면 대둔산을 오른다. 무명의 동학농민군들이 마지막으로 움켜쥐었던 그 **신념과 의지를 되새기기 위해.** 설레고, 두렵고, 그러나 맑아지는 마음으로. 그에게 대둔산은 '성지순례'이자, 오늘을 살아낼 내면의 힘을 되찾는 길이다.

본 글은 블로그기자단의 기사를 소식지 형식에 맞게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은 QR 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단 소식



- 민주주의의 뿌리를 찾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모이다
- 새로운 유족과 함께한 연대의 자리
- 연구와 기록으로 만나는 동학농민혁명
- 동학농민혁명, 기록과 자료로 다시 읽다
- '정읍 황토현 전적'의 위치 고증과 기념공간 재구성 논의
- 김덕명과 김제 동학농민군의 활동
- 2025년도 제2차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위원회
- 제25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회 제6차 회의



행사

민주주의의 뿌리를 찾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모이다

2025년 동아시아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우리 역사 속 아픔을 기억하고 민주주의와 인권·평화의 가치를 계승해 온 기관들이 한 군데에 모였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2025년 동아시아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했다.

2012년 출범한 '동아시아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는 국가 폭력 및 과거사 관련 국내외 기관이 참여해 보편적 가치 확산과 연대를 이어 온 협력체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노근리국제평화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주4·3평화재단, 5·18기념재단 등 국내 기관과 일본·대만의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워크숍 첫째 날에는 조형근(전 한림대 교수)의 '동학농민혁명에서 응원봉까지'를 주제로 강연과 라운드테이블이 열렸다. 이어 참여기관들은 주요 활동을 공유하고 협력 방향을 논의했으며,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해설 프로그램에도 함께했다.

둘째 날에는 전봉준 고택, 사발통문 작성 터, 만석보 터 등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답사하며 131년 전 동학농민군의 희생과 연대를 오늘날 민주주의의 과제와 연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순철 기념재단 이사장은 "오늘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이 만든 성과"라며 "이번 워크숍이 기관 간 연대와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국내 7개 기관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첫째날 강연



둘째날 유적지 답사



새로운 유족과 함께한 연대의 자리 2025년 동학농민혁명 유족한마당 개최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동학농민혁명 유족한마당’이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과 전주시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신규 유족 70여 명과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회장 정탄진) 임원진 등 약 10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 첫날 개회식에서는 신순철 기념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퓨전 판소리 ‘춘삼월’과 정음시립국악단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이후 기념공원 해설 탐방과 유족회 현안 협의 등이 이어지며 유족 간 교류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인 14일에는 전라감영, 완산 전투지 등 전주시 관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탐방했다.

정탄진 유족회장은 “유족의 자긍심과 협력을 높이는 뜻깊은 행사였다”며 “유족과 참여자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더욱 고양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는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와 기록으로 만나는 동학농민혁명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5호 발간



동학농민혁명연구소(소장 김양식)는 2025년 11월 30일,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특집논문(7편), 일반논문(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집논문 1의 주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지역별 성격’으로, ▲「경상남도 동학농민군 등록 참여자의 등록 현황」,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현황

과 성격」, ▲「전라도 서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 등 지역별 참여 양상을 심층적으로 살폈다.

특집논문 2는 ‘기록과 자료로 본 동학농민혁명’을 다루며, ▲「고창지역 민보군의 거의(擧義) 정당화와 의리론」, ▲「고창지역 영학당과 결세 저항운동」, ▲「『甲午日記』를 통해 본 지례 동학농민군의 활동」, ▲「『이풍암공신행록(李豐菴公實行錄)』의 내용 검토와 사료적 가치 분석」 등 다양한 사료적 접근을 제시했다. 일반논문에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서로 다른 방식의 기억들」, ▲「납접·호남 중심 농민전쟁론 넘어서기」,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의의와 활용 방향」, ▲「임실지역 동학농민혁명과 접주 허선의 가계검토」가 실려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과 자료로 다시 읽다

2025년 고창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는 9월 30일 고창 청소년수련관에서 '기록과 자료로 본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학술대회는 ▲정경민(독립기념관 연구원)의 취의록과 거의록으로 본 고창 동학농민혁명, ▲조재곤(서강대학교 연구교수)의 고창 동학농민혁명과 이후 변혁운

동에 대한 재판과 결과, ▲신진희(경국대학교 강사)의 『甲午日記』를 통해 본 지례 동학농민군의 활동, ▲최진욱(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이풍암공실행록(李豐菴公實行錄)』의 사료적 가치와 내용 검토 등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종합토론에는 ▲윤상원(전북대학교 교수), ▲배항섭(성균관대학교 교수), ▲송진현(경북대학교 박사 수료),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등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기록을 재조명하고, 학계와 지역사회가 함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정읍 황토현 전적'의 위치 고증과 기념공간 재구성 논의

정읍 황토현 학술대회



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는 10월 23일 정읍시청 구절초회의실에서 '정읍 황토현 위치 고증 및 기념공간 재구성'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가 사적 '정읍 황토현 전적'의 전투 장소를 정확히 고증하고 전적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술대회에서는 ▲정수환(서울대학교

연구원)의 황토현 전투의 전개 과정과 전투지의 위치 재검토 연구, ▲조광환(동학역사문화연구소장)의 정읍 황토현 전적의 기념사업 추이, ▲백진(서울대학교 교수)의 정읍 황토현 전적 종합정비계획안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종합토론에는 ▲신영우(충북대학교 명예교수), ▲배항섭(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양식(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박준성(역사학연구소 연구원), ▲남해경(전북대학교 명예교수), ▲홍성덕(전주대학교 교수)이 참여하여 전투 장소 위치와 향후 정비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신순철 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황토현 전적의 정확한 위치 규명에 기여하고, 시민과 후손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념공간 조성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덕명과 김제 동학농민군의 활동

2025년 김제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는 11월 6일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에서 '김덕명과 김제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덕명은 금구 대접주이자 전봉준의 친척이었다. 그는 물자와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전봉준의 후견인 역할을 맡았다.

학술대회는 ▲신영우(충북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김기성(동아대학교 연구원)의 금구원평집회와 김덕명 금구 대접주의 활동, ▲배항섭(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원평집강소를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민주주의 실현,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의 김제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과 유족 증언, ▲최고원(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상임이사)의 김제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활용방안 등의 발표로 이어졌다.

종합토론에는 ▲정성미(원광대학교 교수),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박정민(전북대학교 교수), ▲김양식(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이 참여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위상을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5년도 제2차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위원회



9월 23일 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2차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기념재단 및 기념관 운영 현황이 보고되고 2026년도 기념관 사업계획안이 심의·의결되었다.

회의에는 ▲염영선 위원장(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최미혜(전북과학대학교 교수), ▲곽형주(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김도현(법무법인 영 변호사), ▲임종명(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정석(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철 전북특별자치도 유산관리과장 대리참석), ▲안승섭(기념재단 사무처장)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기념관 운영의 내실화와 내년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념관 활성화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25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참여자 60명, 유족 5명 등록 심의, 의결



지난 9월 25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에서 제 25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순철 위원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구선희(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김춘성(천도교 선도사), ▲배

항섭(성균관대학교 교수), ▲정탄진(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 회장), ▲이정미(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우선희 사무관 대리 참석) 위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62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그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60명과 유족 5명이 심의, 의결되었다.

이로써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총 4,033명, 등록된 유족은 13,839명에 이르게 되었다.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회 제6차 회의



11월 20일 기념재단 회의실에서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회 제6차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연구소 추진 사업 보고와 2026년 연구소 사업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회의에는 ▲김양식 위원장(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을 비롯해 ▲배항섭(성균관대학교 교수), ▲조재곤(서강대학교 연구교수), ▲홍성덕(전주대학교 교수), ▲조성환(원광대학교 교수), ▲신진희(경국대학교 강사), ▲최두현(기념재단 기획운영부장)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연구소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연구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 연구 활성화와 역사적 자료 정리·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란의 시대에서 혁명을 노래하다

한국 헤비메탈 밴드
'블랙홀' 주상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우리 민족이 가진 저항의 힘,
결국 승리한 사람들의 힘입니다.**

한국 헤비메탈의 살아 있는 역사이자, 36년째 한 장르를 지켜온 밴드 블랙홀의 리더 주상균은 동학농민혁명을 향한 자신의 감정과 예술적 신념을 이렇게 요약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우리 역사와 민초의 서사를 30년 넘게 노래해 온 몇 안되는 뮤지션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기록자이다.

오래 품어온 질문, 동학농민혁명으로 향하다

지난 6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주최한 동학농민혁명 연구창작자 워크숍에서 그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오래도록 품어온 질문을 확인하고 확장하기 위한 자리였다.

실제로 블랙홀의 역사적 서사는 1990년에 발표한 ‘늑두꽃 필때에’로 시작된다. 당시 그는 젊은 청년이었고, 사회는 아직 동학농민혁명을 ‘반란’으로 여기던 시절이었다. 이 사건을 노래한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자 금기였던 시절이다. 심지어 ‘늑두꽃’이라는 제목만으로 동학농민혁명을 떠올리는 사람조차 거의 없었다.

블랙홀의 ‘늑두꽃 필때에’는 시대를 거스른 노래였다. 빠르고 거칠면서도, 정직한 메탈 사운드 위에 한국사와 민초의 저항을 올린 시도는 거의 전례가 없었다. 주상균은 영어 가사가 대세이던 시절 한국어 가사를 고집했고, 당시 유행과 정반대의 곡을 내면서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고(故) 신해철 이 라디오에서 이 노래를 ‘명반’이라 극찬한 것도 그 고집과 신념을 알아본 결과였다.

“우리 역사가 왜곡된 채 잊히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민초가 세상을 바꾸려 한 그 힘을, 누군가는 계속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초의 이름을 노래하게 한 삶의 경험

그가 음악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찾은 뿌리는 어린 시절 읽었던 한국사 전집에서 비롯됐다. 책 속에서 그는 외세에 굴복하지 않고 버텨낸 민중의 역사, 특히 **백성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고자 일어섰던 동학농민혁명에서 강렬한 충격을 받았다.** 이후 5·18민주화운동을 직접 겪으며, 그는 **‘누가 역사에서 이름을 지우는가’라는 질문과 마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지도자의 이름이 아닌, 민초의 이름을 노래하겠다.**

“세상이 이렇게 더디게 바뀌는 게 한탄스럽습니다. 아직도 동학농민혁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종로에 세워진 전봉준 동상의 모습조차 왜 저항의 얼굴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그의 분노는 과격하지 않다. 대신 잘 여문 곡식처럼 진득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을 갖고 있다. 그 힘은 결국 ‘사람’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 그는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 산다”는 단순한 문장을 이야기의 끝에 꼭 덧붙인다. 나와 가족, 이웃, 그리고 공동체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것이 그가 역사와 민중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이유다.



‘잊혀진 전쟁’을 다시 부르는 목소리

이러한 문제의식은 다른 음악으로 이어졌다. **‘녹두꽃 필때에’가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적 출발점이라면, 이후 발표된 ‘잊혀진 전쟁’은 동학농민군이 끝내 목숨을 걸었던 우금치 전투를 정면으로 다룬 곡이다.** 이 노래에서 그는 민초의 패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되짚는다. 억눌린 이름, 지워진 역사, 기록되지 않은 죽음들. 그는 그 침묵 속에서 살아 있는 목소리를 다시 끌어 올렸다.

“우리는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는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문장이다. 그 승리는 권력의 승리도, 국가의 승리도 아닌 **민초의 승리.** 역사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완성되는 승리다.

마지막 여정과 염원

현재 그는 10집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이다. 36년 동안 10집 정규 앨범을 목표로 달려왔고, 이제 그 마지막 여정에 섰다. 이 앨범에도 역사적 주제가 배경이 될 것이라 말한다. “오늘 인터뷰에서 나눈 이야기들도 10집 앨범의 중요한 소스가 될 것 같다”며 그는 미소 지었다.

밴드 블랙홀

주상균(보컬, 기타), 이원재(기타),
이관욱(드럼), 김세호(베이스)

데뷔

1989.02.07. 1집 앨범 [Miracle]

수상

2006년 제3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록 앨범상, 최우수 록 싱글상

마지막으로 그는 독자들에게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동학농민혁명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도 노래로 응원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함께 힘을 보태 주세요.”

그의 말과 음악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모인다. 동학농민혁명은 끝난 사건이 아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불러야 할 노래다. 아직도 ‘잊혀진 전쟁’을 기억해야 하고, ‘녹두꽃’을 다시 피워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블랙홀의 주상균은 그 노래를 36년째, 변함없이 가장 뜨겁게 부르고 있다.

(대담 및 정리: 기념재단 기획운영부 임현진)

블랙홀의 ‘녹두꽃 필때에’ 공연 영상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세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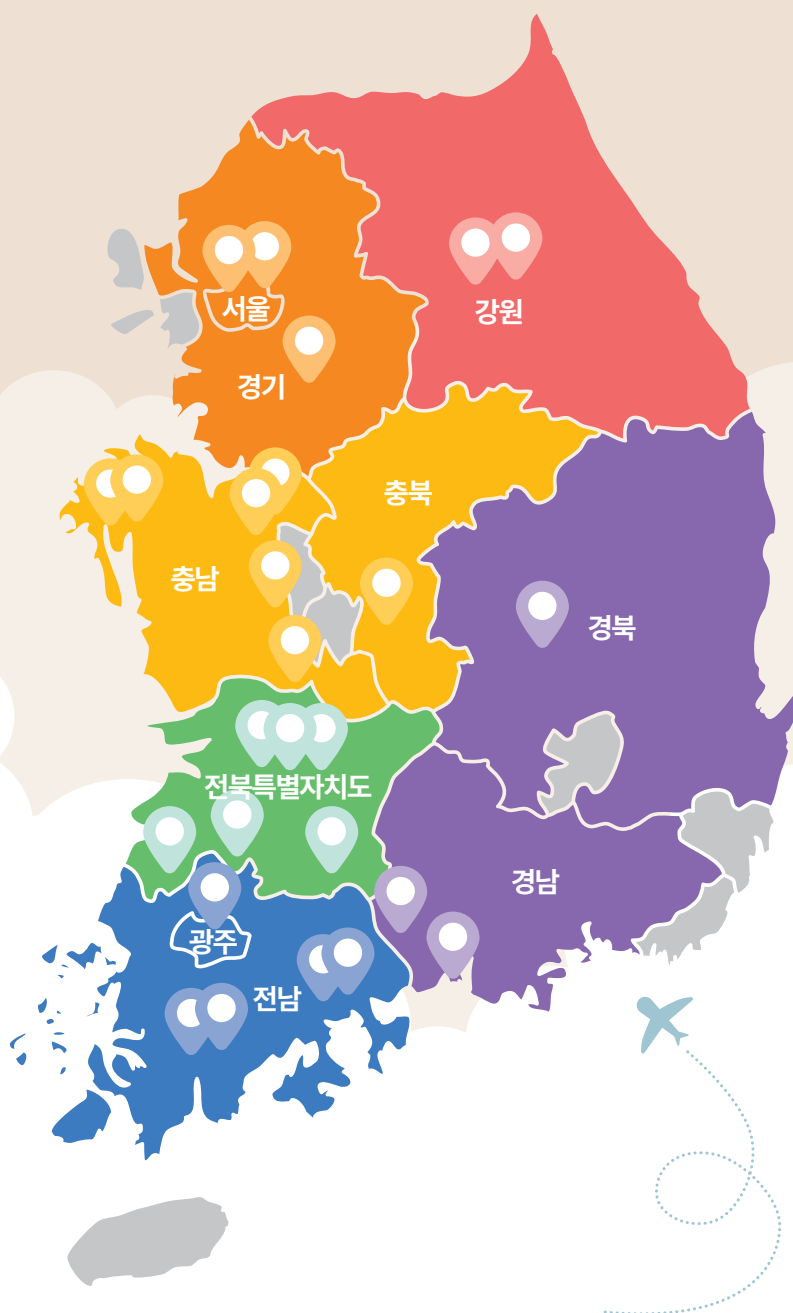
주상균

이관욱

이원재

전국 소식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 활동과 현장의 순간들을 전합니다.



강원동학21 출범

강원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선양 단체 확대

강원특별자치도 전체를 아우르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인 강원동학21(대표 권소영)이 11월 6일 출범했다. 발대식은 홍천 크리스탈 웨딩홀에서 열렸다. 강원동학21은 기존 홍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계승하여 강원 전역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확산하기 위해 확대된 단체다.

강원동학21은 앞으로 위령제와 학술대회, 교육·연구, 공연, 공동체 운동, 국제교류, 관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사에는 200여 명의 도민과 동학농민혁명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회장,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 회장, 최인경 천도교 사회문화관장 등 주요 인사들도 함께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역사와 정신을 잇다

제131주기 동학혁명 추념식

10월 23일 홍천문화원(원장 박주선) 주최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인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동학공원에서 제131주기 동학혁명 추념식이 열렸다. 이날 추념식에는 홍천군, 홍천문화원, 천도교,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홍천소방서,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 대한민국무궁수훈자, 대한민국특전동지,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 홍천군청소년수련관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참석해 희생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동학서훈국민연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촉구 1인 시위

동학서훈국민연대(상임대표 박용규) 대표단 일행이 10월 한 달간 여의도 국회 앞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수여 법를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벌였다. 박용규 상임대표를 비롯해 문영식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허채봉 부산기념사업회 대표, 정성원 공주기념사업회 이사 등 전국 각지 기념사업 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목소리를 모았다.

대표단은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맞서 일어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아직까지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와 여야정당이 관련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동학농민혁명 명칭 및 정신 헌법 전문 명시를 위한 토론회 개최

10월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윤준병 국회의원과 정읍시가 공동 주최한 동학농민혁명 명칭 및 정신 헌법 전문 명시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헌법 전문 명시를 위한 공동 성명'을 낭독하고 헌법 전문 명시를 촉구하는 구호를 제창하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토론회에는 ▲김준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용인(제주대학교 교수), ▲임형진(경희대학교 교수), ▲신순철(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남경국(광운대학교 교수)이 참여했다.

동학 정신, 예술로 꽃피다 제2회 K-동학예술제 성료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정정숙)가 동학농민혁명 131주년 특별기획 전시회 '밥이 생명이야!'를 주제로 9월 6일부터 30일까지 용인 근현대사미술관 <담다>에서 전시를 진행했다. 개막식에 이어 열린 예술제에서는 진혼무와 검기무의 콜라보, 살풀이춤 등이 펼쳐졌다. 제2회 K-동학예술제 작가상은 김성인(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상) 등 7명이 수상했고, 동학 콘텐츠 대회는 장은유, 홍덕초4(대상, 그림) 등 6명이 선정되었다.





제11회 동학농민혁명 청산기포령 기념축제 개막

충청북도 옥천군

1894년 6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 각지에서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이어지자, 동학교주 최시형은 동학농민군의 총궐기를 명령하는 '청산기포령'을 내렸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11월 1일 충북 옥천군 청산면 다목적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기념축제는 도종환(시인,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기념강연을 비롯해 진혼제, 학술회의 등으로 진행됐다.

기억을 깨우는 자리 제32회 우금티 추모예술제

충청남도 공주시

10월 25일, 충남 공주시 공주목 관아 터에서 제32회 우금티 추모예술제가 열렸다. 공주시(시장 최원철)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공주시 경제문화국장, 박찬석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이사장, 동학농민혁명 유족,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유무상자(有無相資)의 실천은 기본소득이다'를 주제로 한 예술제는 금강풍물패의 길놀이로 문을 열었다. 뒤이어 희생된 농민군의 넋을 기리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추모제례가 진행되었다.




2025 논산동학한마당 개최

충청남도 논산시

충남 논산시에서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논산동학한마당이 개최됐다. 논산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회장 김선덕)가 주최하고, 논산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논산 지역에 깃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첫날에는 김홍신문학관에서 허채봉(부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대표)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둘째 날에는 논산오거리광장과 황화산성 봉수대 일대에서 자료전시, 길놀이, 연극, 시낭송 등 시민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2025년 천안남산오룡쟁주 동학문화제 개최

충청남도 천안시 

동학농민혁명 131주년을 맞아 2025년 천안남산오룡쟁주 동학문화제가 10월 17일 천안 남산 일대에서 열렸다. 오후 2시 남산공원 응주정에서 천안남산전투 학술대회가 진행되었고, 이어 중앙시장까지 이어지는 대동놀이 한마당에서 살풀이춤·북놀이 등 전통공연이 펼쳐졌다.

남산전투는 1894년 일본군과 관군에 맞선 동학농민군의 항전을 상징하는 전투로, 이후 남산은 3·1운동과 일제 신사 강요 등 민족운동의 무대로 이어졌다. 이번 문화제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시민과 공유하고 천안 남산을 저항과 연대의 상징 공간으로 확립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제131주년 제35회 태안동학농민혁명군 추모문화제 거행

충청남도 태안군 

10월 29일 충남 태안군 태안백화산 추모탑과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제131주년 제35회 태안동학농민혁명군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동학농민혁명 태안군유족회(회장 문영식)와 태안군기념사업회(회장 문태식)가 공동 주최했으며, 박인준 교령이 참석해 추모사를 전했다. 문화제는 1894년 태안 동학농민군의 항일무장투쟁 정신을 기리고 자유·평등·인간 존엄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태안동학농민혁명사』 출판기념 행사도 함께 진행되며 동학의 인내천 사상과 자주·평등 정신을 재조명했다.



2025년 동학농민혁명 제131주년 태안 동학농민혁명사 학술대회 개설

충청남도 태안군



10월 30일 태안문화원 2층 아트홀에서 동학농민혁명태안군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후원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태안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로, 신영우(충북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과 김양식(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정을경(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에는 지역 사회 관계자와 역사·문화 전문가들이 참여해 앞으로의 기념사업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2025 아산 동학농민혁명 계승 기념식 및 문화제 열려

충청남도 아산시

11월 9일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동학농민혁명아산기념사업회(이사장 장명진) 주최로 2025 아산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및 문화제가 열렸다. 기념식은 ‘1894 동학혁명에서 2025 인내천 응원봉 빛의 혁명까지’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1894년 폐정개혁안 정신을 계승한 ‘2025년 신폐정개혁안’을 발표하고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을 외쳤다. 문화제에서는 창작융합극 「녹두꽃, 불꽃이 되다」가 공연되어, 동학의 인내천 정신을 현재와 미래 가치로 이어갔다.

행사에는 김범수 아산시 부시장, 홍성표 아산시의회의장 및 시의원, 충남동학단체협의회(대표 이용길), 동학 실천시민행동 등 여러 관련 단체가 참여했다.



아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2025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워크숍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전북 고창 선운사 일대에서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회장 정탄진) 임원 워크숍이 열렸다. 전국 시도별 유족회 임원 약 50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첫날 배항섭(성균관대학교 교수)의 강연과 유족회 발전 방안 협의가 진행되었고, 둘째 날 전봉준 생가 터, 무장기포지, 무장읍성 등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탐방이 이루어졌다.

이번 워크숍은 유족들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재조명하고 공동체적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131주기 김개남 장군 추모제 거행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10월 18일 전북 정읍시 산외면 김개남 장군 묘역에서 제131주기 김개남 장군 추모제가 열렸다. 김개남장군기념사업회(회장 김호영) 주관, 정읍시 주최로 진행된 이번 추모제에는 지역 유족과 기념단체 관계자, 주민들이 참석해 장군의 애국 정신을 되새겼다.

추모제는 묵념과 추모사, 초헌·아헌·종헌 순의 전통 제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김개남 장군은 동학농민군 2차 봉기 시 청주 병영 공격을 주도했으나 우금치 전투 패배 후 체포되어, 1894년 12월 3일(음력) 전주 초록바위에서 순국했다. 현재 묘역은 1995년 후손들이 조성한 가묘로 관리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131주년 제6회 남원 출정식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10월 25일 남원 사랑의 광장에서 동학농민혁명 131주년 제6회 남원 출정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남원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안경엽)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남원산림조합, 남원축산업협동조합이 후원했다. 풍물공연과 위령제를 비롯해 사물놀이, 지리산노래패, 요천유랑극단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5 동학농민혁명 미술제 개막

2025년 동학농민혁명 미술제가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북예술회관 전시관에서 열렸다.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이 주관한 이번 전시에는 이기홍 화백을 포함한 전북 작가 100여 명이 참여해 회화, 판화, 서예, 소조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 미술제는 예술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현재적 가치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최후항쟁 기념 및 추모 제례 봉행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11월 14일 전북 완주군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항쟁전적비에서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최후항쟁 기념 및 추모 제례가 열렸다. 이곳은 공주 우금티전투에서 패배한 동학농민군이 후퇴하면서 그 일부 세력이 대둔산으로 들어가 숨어 지내다가 일본군과 조선 관군의 공격에 맞서 최후까지 항전하다 소년 1명을 제외한 25명이 모두 전사한 곳이다.



삼례, 척왜(斥倭)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131주년 기념 음악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일본군의 경복궁 침략 이후 동학농민군 재봉기의 중심이 된 완주군 삼례에서 삼례봉기 13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11월 22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에서 열렸다. 유희태 완주군수와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봉기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기렸다.

음악회는 '삼례, 척왜(斥倭)'를 주제로 시낭송과 낭독극, 여원싱어즈 및 여원국악단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로 구성되었다. 이번 행사는 삼례를 동학농민혁명의 중요한 성지로 다시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라남도 순천시 

제2회 동학농민혁명영호도회소 학술대회 개최

동학농민혁명영호도회소 기념사업회(대표 이하윤)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이 후원한 제2회 동학농민혁명영호도회소 학술대회가 9월 16일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이라는 주제로, 영호도회소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을 규명하여 전남 동남부 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과 연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영호도회소는 김인배 대접주를 중심으로 전남·경남 일대를 아우른 대규모 동학농민군 조직이지만 그동안 그 활동을 충분히 살펴볼지 못했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영호도회소 동학농민군의 활약을 체계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 서 큰 의미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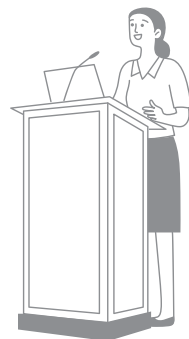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국제학술대회 진행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는 10월 22일 순천 전남도청 이순신강당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광주전남항일활동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전라남도와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주최·주관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중 학계 전문가와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는 ▲도을 김용옥의 기조강연, ▲위신광(중국 산둥대학교 교수)의 발표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남지역 동학농민혁명 연구와 유적지 정비, 교육·문화콘텐츠 개발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장흥 석대들 전투 희생 동학농민군 묘역 벌초 진행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고제국)와 장흥군 농민회는 9월 23일 장흥공설묘지 4구역에서 석대들 전투 희생 동학농민군 1,700기 무명 묘역을 정비하고 제례를 올렸다. 1894년 12월(음력) 장흥 석대들 전투에서 일본군과 관군의 신식 무기에 약 2,000~3,000명의 동학농민군이 희생됐다. 기념사업회는 매년 추석을 앞두고 묘역을 벌초하며 희생자를 기리고 있으며, 고제국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대규모 집단 묘역에 대한 연구와 국가적 보존·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 동학농민군 이소사 추모 산사음악회 개최

제9회 천관사 산사음악회

전라남도 장흥군

11월 1일 장흥 천관사에서 여성 동학농민군 이소사 장군과 옥산별 전투 희생자를 추모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음악회는 ‘천관산 동백숲, 깊어가는 가을빛’을 주제로, ▲위의환(전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의 강연과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씻김굿 공연으로 진행됐다. 연등 주지 스님은 “사람답게 살고자 했던 동학농민군과 지역민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추모음악회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동학농민혁명 광주침산전투 전적비 제막식 거행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곡동 침산마을에 동학농민혁명 침산 전투 희생 농민군을 기리는 전적비가 건립되었다. 전적비는 광주유족회(회장 강성진), 광산구 등이 협력해 조성했으며, 10월 20일 열린 제막식에는 전국 기념사업회 대표단과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광주 침산 전투는 1894년 10월(음력) 나주 수성군과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격돌해 큰 희생을 치른 역사적 전투로 평가된다. 참석자들은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동학농민혁명의 평등·자주 정신을 계승해 나아가 함을 강조했다.



상주동학농민혁명 131주년 위령제 및 학술대회 거행

경상북도 상주시 

상주동학농민혁명 131주년 기념행사가 11월 22일 경북 상주시 (구)삼백시네마 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상주의 함성! 이제 백성의 나라로!'를 주제로, 위령제와 학술대회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학술대회에서는 상주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미래를 주제로 한 3개의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연구자들이 참여해 평등과 연대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논의했다. 김봉기 화백의 판화전도 함께 열려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상주시, 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회장 조원희)가 공동 주최·주관했다.



2025 남해동학문화예술제 개최

 경상남도 남해군

지난 11월 9일 남해문화센터에서 2025 남해동학문화예술제가 개최되었다. 행사에서는 ▲심용환(역사N 교육연구소 소장)의 동학 역사 특강과 ▲2025 신편 정개혁신 선언, ▲지역 예술인 초청 공연, ▲동학 미술·캘리그래피 전시회가 진행되며 인내천 정신을 되새겼다. 참가자들은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체험하며 서로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남해군 주최, 남해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김환용) 주관, 천도교 중앙총부 후원으로 열렸다.

제131주년 하동 고성산동학혁명군 위령식 봉행

 경상남도 하동군

11월 11일 경남 하동군 고성산 위령탑 앞에서 제131주년 하동 고성산동학혁명군 위령식이 봉행되었다. 이날 위령식은 국민의례 후, 천도교 의례에 따라 진행되었다. 박인준 교령과 신순철 기념재단 이사장의 추모사 대독, 분향 및 추모가 합창 등으로 이어졌다. 이후 부산연합합창단의 기념공연과 서만석 명창의 판소리 공연으로 위령식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녹두꽃 다시 피다

교육체험을 통해 다시 피어나는 녹두꽃 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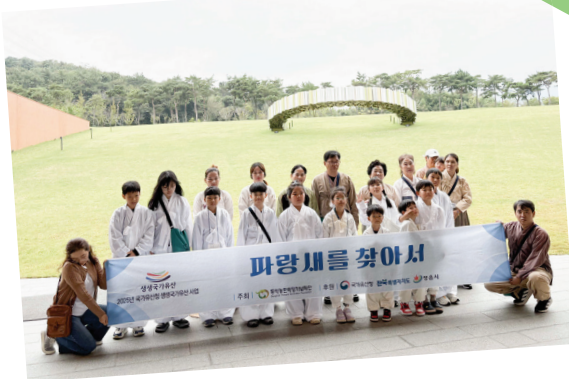
교육청 답사



유적지 답사



찾아가는 기념관



파랑새를 찾아서





들판 위 작은 웃음들

놀이가 배움이 되는 따뜻한 하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퀴즈 EVENT!

소식지 내용을 바탕으로 한 퀴즈를 풀고, 정답을 제출해 주세요.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Q.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 ① 바람 따라 걸으면 힐링되는 기념공원
- ② 가족과 함께 텐트도 펴고 즐기는 캠핑장
- ③ 배우고 놀고 체험까지 가능한 교육프로그램
- ④ 사진 찍기 좋은데 음료도 패권 카페
- ⑤ 시대를 뒤흔든 조병갑 본인

당첨자 선물



치킨 3만원권
(10명)

응모기간

2026. 1. 1.(목) ~ 2026. 1. 25.(일)

응모방법

01



QR코드 찍기

핸드폰 카메라로
왼쪽 QR코드를
찍어주세요.

02



퀴즈 풀기

QR코드를 찍어서
열린 이벤트의 퀴즈를
풀어주세요.

03



응모하기

이름과 휴대폰 번호도
같이 작성해서
응모해주세요

이벤트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 ※ 1인 1회 응모 가능하며, 이벤트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 주셔야 정상적인 응모가 가능합니다.
- ※ 경품은 이벤트 참여 시 작성해주신 개인정보로만 발송이 가능하며 잘못된 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는 경품 발송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발송 후 모두 폐기됩니다.

녹두꽃 61호 퀴즈 이벤트 당첨자

61호 퀴즈

Q. 2025년 하반기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전시 제목은?

- ① 대둔산 숨참고 정상 다이브
- ② 대둔산에서 불타오르네
- ③ 대둔산 사랑을 했다
- ④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최후의 향전지
- ⑤ 대둔산 넥스트레벨 간다

퀴즈 정답 ④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최후의 향전지

퀴즈 정답자

장*민(0247님)

정* (5327님)

배*림(7829님)

두*희(9018님)

신*나(7509님)

이*연(4910님)

박*민(0949님)

신*선(1697님)

우*봉(2306님)

라*호(1530님)

독자 참여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카페테리아 1894

화요일-토요일 9:00-18:00

ROYAL
MILKTEA



HOT / ICE

홍차 본연의 깊은 향을 담은
로얄 밀크티 6.0

Royal Milk Tea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 휴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등록 신청안내



1. 대상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하여 실제 전투에 참여한 자
- 동학농민혁명 당시 물자를 제공한 자(정보 포함) 및 노동력 제공자
- 기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것이 명백한 자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외손, 외증손, 외고손 포함)



2. 서류 및 제출방법

가. 신청 서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첨부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각1부
- 참여자와 신청인의 유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 신청인의 선조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

나. 제출방법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유족 신청 바로가기



3. 문의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063-530-9434 ~ 5)

○ 위원회 홈페이지(www.cdpr.go.kr) 또는

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



unesco

Inscribed on the
International Register
Memory of the World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부금모금 안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국가기념식 개최,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기념공원 및 기념관·자료관 운영 등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단은 공익법인단체로서 아래와 같이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용도

-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 사업 추진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사업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본재산 및 운영 경비 확충
- 그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참여 대상

- 기관, 단체, 개인 등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

기부 방법

- 무통장입금/계좌이체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획운영부 담당
(063-530-94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 방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획운영부

기부자 공개 사항

- 기부자 및 기부금에 대해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홈페이지 공개

기부자 예우

- 소정의 기념품
- 기부금 세액공제
 - 개인: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1천만 원 초과 시 3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
 - 법인: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



대중산

동학농민혁명 최후항전지

임 채 욱
Lim Chae Wook

2025.9.23^화 - 2026.2.22^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실

주최·주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후원 전북특별자치도